

## 촉망받던 광주 하이테크 기업 '솔렌시스' 지난 1년 무슨 일이

# 극심한 자금난 전기마저 끊겨

터치패드 원천기술 보유업체로 촉망받던 솔렌시스(주)가 설립 1년여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부실 리스트에 올랐고, 근로자들은 수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해 공장설비에 가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미납에 따라 단전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솔렌시스측은 "다각도로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라며 "급한대로 20여원을 마련하면 이같은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자금난은 어느 정도=솔렌시스의 자금 사정은 전기요금, 임대료,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급증하면서 심각해져서로 파악됐다. 솔렌시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된 금액은 4600만원 정도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8일 오후 5시를 기해 솔렌시스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했다.

솔렌시스는 지난해 6월경부터 자금난에 시달린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8월부터는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석 달 이상 임금이 체불되면서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진정을 냈고,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임금체불과 관련해 진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50여명이 임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공장 설비에 대해 가압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자금난 압박도 가시화되고 있다. 자금을 빌려준 국민은행은 최근 솔렌시스를 부실리스트에 올리고,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금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

라 정보는 조만간 솔렌시스에 최고장을 보낼 예정이며, 자금 상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달 중순에 담보물건에 대해 경매 처리할 방침이다.

◇위기 왜 왔나=초기 자본 없이 첨단기술만 믿고 사업을 벌인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솔렌시스는 스마트폰의 터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력은 지식경제부도 인정했

빠져들었다. 우관제 솔렌시스 사장은 "광주에서 첨단 터치산업의 꿈을 이루고자 뛰어났는데 지역적 한계를 많이 느꼈다"며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투자협상이 깨진 게 다반사였다"고 하소연했다. 또 기술만 빼가려는 접근도 허다했다고 밝혔다. 실제 솔렌시스는 기술 유출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위기 극복 가능하나=우사장은 "현재 중국에 들어온 터치패널 수요 전망이 350만~550만개 된다"며 "자금이 풀리면 수출이 이뤄져 자금 회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터치패널은 1만개 당 1억원가량으로 우사장의 주장대로라면 350억~55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국내 모태대학에서 기술협력에 따른 20억원의 투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과테말라 정부의 200억원대 플랜트 수주, 독일의 자동차 적용 기술 협력, 이스라엘의 방위산업 적용 R&D 협력 등이 추진되고

### 터치패드 생산 수출 시작단계서 위기 금융권 이자 압박 직원 봉급도 못줘



자금난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설립 1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광주 첨단산단내 솔렌시스(주) 전경. /니명주기자 mjna@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식재산센터도 글로벌IP스타기업으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광·가전·자동차 등 광주전략산업에 터치 기술을 적용하면 광주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고 솔렌시스 유치에 공을 들였다.

광주시는 첨단산단 5100㎡ 부지를 무상 제공했다. 공장 설비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갖췄다. 지난해 12월 공장 준공과 동시에 시제품 생산 등 공장 가동에 들어갔고, 한편으로 첨단기술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뜻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있는 것이다. 오는 2월 말 해외지사 직상장도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사장은 "사기를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기를 생각했다면 투자금을 모았던 초기에 튀었지 아직까지 투자유치를 위해 동분서주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어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우 사장은 "한 달만 기다려주면 광주에서 잘 할 수 있다"며 "지방기업·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 회의'에 참가한 로세르 탈레스 BIE(국제박람회기구)사무총장 등 각국 대표 300여명이 9일 마무리공사가 한창인 박람회장을 둘러보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원더풀! 여수...개막 기대된다"

## 박람회 참가국·국제기구 대표 300여명 조성 현장 준비 상황 점검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국 대표들이 개막을 93일 앞둔 9일 박람회장을 찾아 조성 현황을 둘러보고 "개막일이 기다려진다"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

9일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로세르 탈레스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을 비롯, 박람회에 참가하는 101개국 관계자와 9개 국제기구 대표 300여명은 이날 여수를 찾아 마무리공사(공정률 93%)가 진행중인 박람회장 해상무대와 빅(O), 국제관 등을 둘러보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로세르 탈레스 사무총장은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준비가 훨씬 잘되어 감동받았다"면서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박람회가 열린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며, 개막일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박람회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남은 기간 정부·인론을 비롯, 박람회기구사무국·조직위원회·참가국이 하나가 돼 '원더풀 여수'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 대표단은 특히 전시관이 들어 세워지는 국제관 조성 현황을 찾아 차별하는 101개국 관계자와 9개 국제기구 대표 300여명은 이날 여수를 찾아 마무리공사(공정률 93%)가 진행중인 박람회장 해상무대와 빅(O), 국제관 등을 둘러보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제관은 박람회장 내 20개 전시시설 중 가장 면적(13만2649㎡)이 넓은 전시관으로, 106개 참가국들의 독특한 해양 문화와 첨단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중국 대표로 여수를 찾은 쟁짜오씨도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조직위원회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이라는 여수박람회 주제에 맞는 전시 계획을 세워 관람객들에게 중국의 독특한 해양문화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프랑스·중국·일본 등 50개국은 국제관 내에서 개별 전시관을 열고 나머지 56개국은 대시양·태평양·인도양 등 대양별로 3개의 공동 국가관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로세르 탈레스 사무총장과 강동석 위원장은 이날 박람회조직위와 BIE·코스모스재단이 여수박람회 주제 관련 프로젝트 공모작에 수여하는 BIE코스모스상 조인식을 가졌다. BIE 코스모스상은 박람회에 일반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 사라고사 엑스포에서 처음 시상됐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기득권 철거 배제 가치·비전 우선

## 민주통합 공심위 공천심사 기준 마련 13일 심사 개시

강철규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장은 9일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 가치와 비전 등을 토대로 하는 공천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공심위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에 최종 공천 심사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강철규 공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천 심사와 관련,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고려하지 않겠다"며 "적극적으로 말하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이번 공천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후보를 뽑는다는 점에서 '희망 공천'이라고 하고 싶다"며 "민주통합당의 비전인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이룰 수 있는 분을 뽑겠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여성 공천비율 15%는 당규정대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무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와 달리 여성의 사회 참여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2~3배수 압축 컷오프  
여성공천 15% 그대로  
야권연대는 박원순식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공심위 간사는 이날 추가 브리핑을 통해 공천 심사에서의 정채성 배제 확대 방침과 관련, "정채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지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력, 즉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전체 배제 기준에서 가장 높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공심위원도 "일요일까지 공천 심사와 방법 등에 대한 결론을 내고 13일 최고위원과 당무위에 최종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컷-

오프에 대해서는 "일단 2~3배수로 압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지역구 경쟁 구도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전략공천과 관련 "광주·전남지역에서 여성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성 예비후보들의 자질과 지역 여론의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략공천이 이뤄진다고 해도 1~2곳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의 중도 사퇴 이후 출마 문제와 관련, 우 위원장은 "공심위 내부에서는 페널티를 주자는 의견과 결과만 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일률적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야권연대에 대해 우 위원장은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야권연대가 이뤄진다면 과거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무공천 방식보다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상천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민주통합당 박상천 의원(고흥·보성)이 9일 4·11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호남 불같이론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민주당 최다선인 5선 의원으로 출마 여부가 가장 주목된 호남 최고 중진 중 한 명이었던 때문이다. <관련기사 5면>

그는 이날 불출마 선언문을 통해 "이제 나이가 많아져 가족들이 몇달 전부터 불출마를 요청하고, 지역구에서도 같은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 "젊은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으로 13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통합선거법·안기부법 개정 등 굵직한 입법 실적이 많아 '법안 제조기'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희태 국회의원 전격 사퇴

박희태 국회의장이 9일 의장직을 사퇴했다. 지난달 3일 새누리당 고승덕 의원이 2008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전달받았다고 폭로한 지 37일 만이다. <관련기사 5면>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한종태 국회 대변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저는 큰 책임을 느끼며 의장직을 그만두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역대 의장 중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진 한 의장은 박 의장을 포함한 이승만·이기봉·박준규 등 4명이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장이 겸할 수사와 연관돼 불명예 퇴진한 것은 박 의장이 처음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정권교체, 광주발전 해내겠습니다!!

### 사상최대 국비 확보

# 광주 강기정 후원회

- 전남 고흥 출생(47세)
- 광주 대동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 전기공학과 졸업
- 전남대 행정학 석사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전)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강기정 후원회 (후원회장\_ 전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 조국현)

- 후원회 계좌 : 농협 601177-55-002903 예금주 : 국회의원 강기정후원회
- 후 원 안 내 : 홈페이지 (www.kj21.org)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후원회사무소 : 광주광역시 북구 두원2동 561-7번지 동광주빌딩 7층 T.062)267-9913 @gijungkang f/kjkang21